메리츠 금융 Daily

2020. 10. 6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주요은행 신용대출 증가세 주춤…마지막 3일간 5천억 감소 — 연합뉴스

국내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증가세 꺾여... 금융당국이 규제 움직임에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 조이기... 일부 대출은 상여금 등으로 상환...
"지난달 신용대출 감소세가 주춤한 데는 정책 효과가 가장 컸다"

코로나發 좀비기업 급증…은행들 충당금 공포 — 데일리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올해 5000여곳으로 늘어날 것... 시중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등 자본건전성 관리에 비상...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 은행들은 만약의 사태에 활용할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

저금리 해법 찾아라…은행도 서학개미와 '한 배' —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이 1년 새 6조원 넘게 불어나... '서학개미'의 질주에 은행들까지 동참하는 모습...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제로금리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佛 BNP파리바와 결별하나…신한, 합작사 지분인수 추진 — 한국경제

신한지주가 양사 합작사인 신한BNPP운용의 BNP파리바 측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결별 수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선진 금융기법을 배우겠다는 의도로 합작을 벌였지만, 국내 금융사 능력이 향상되면서 필요성이 작아졌다"

삼성생명, '암분쟁' 대법서도 승소… 보험사 앞 농성은 여전 — 파이낸셜뉴스

암환자 단체가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은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의료자문 거쳐 보험금 지급 거부, 한화그룹 보험사들이 최다 — 조선일보

의료자문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나...
한화생명 부지급 건수는 402건... 한화손해보험 부지급 건수는 165건... 보험사가 의료자문 제도를 남발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쇼핑'한 해외부동산 40% 못 팔고 떠안은 증권사 — 한국경제

증권사들은 인수한 해외 부동산을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형태로 만들어 국내에서 재판매해 와... 코로나19로 상황 급변...
오피스,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치솟아... 현재 9조 610억 규모의 자산을 셀다운 실패해 증권사들이 보유중... 규모로는 미대우, 하나금투 순...

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초읽기...'CEO 중징계' 수위 촉각 — 데일리안

이달 운용사 시작으로 제재심 본격화... '라임' 등록취소 기정 사실화... 판매사 기관징계 ·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미흡을 근거로 CEO를 징계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책임을 CEO에게 지우는 근거가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